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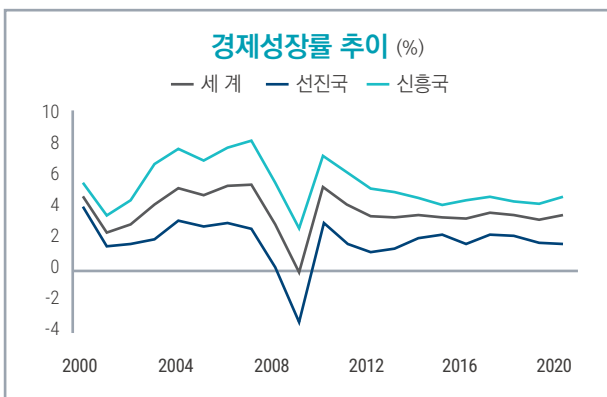
2019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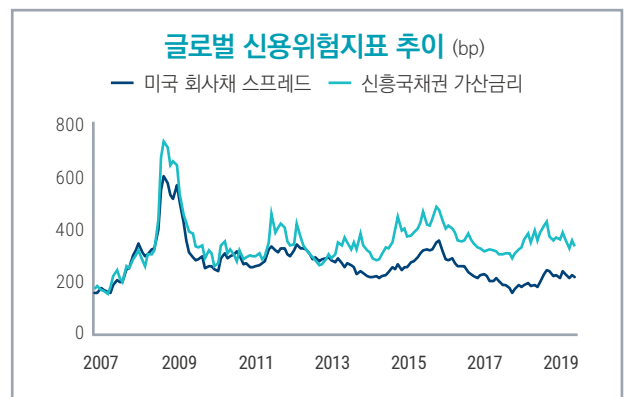
“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세계 수출량 증가율과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장단기 금리역전, 주가 변동성 확대, 신흥국의 자본유출과 환율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 화폐유통속도와 통화승수가 낮아지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항목 중 투자 건인효과가 가장 크고, 순수출 건인효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본순유출 실제수준은 잠재수준보다 높아 초과순유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

I. 세계경제 환경

IMF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8년에 비해 0.3%p 하락한 3.0%, 2020년 3.4%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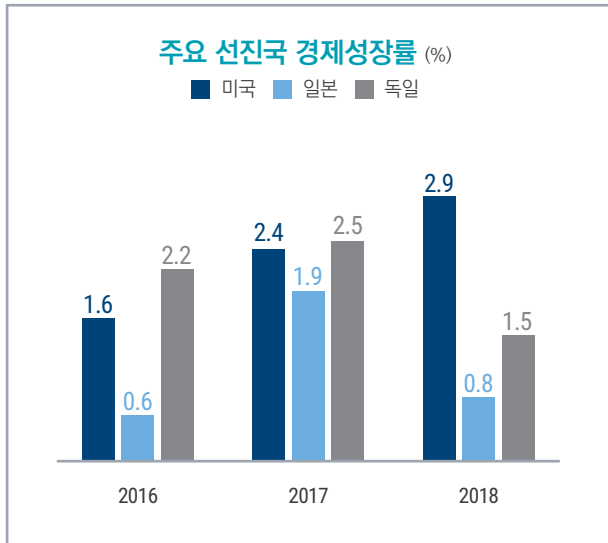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량 감소, 영국의 브렉시트 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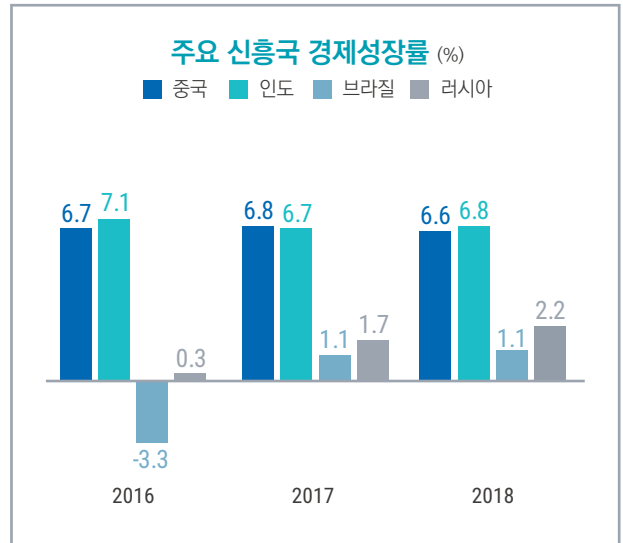
글로벌 신용위험지표가 등락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장기국채에 대한 선호로 일부 국가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발생

II. 선진국·신흥국 경제 현황

1. 주요국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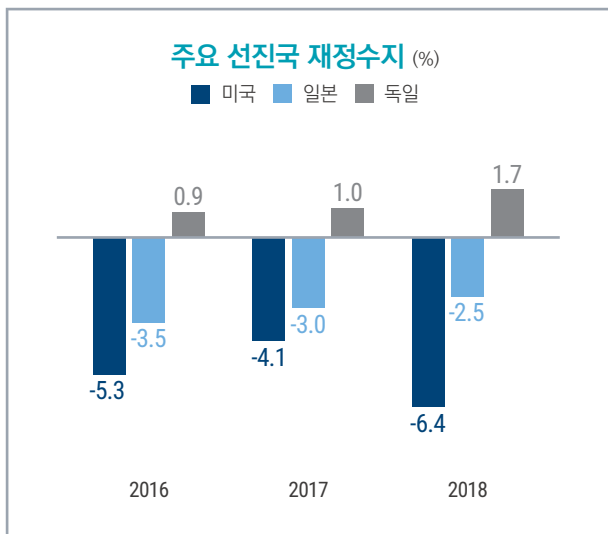


일본과 독일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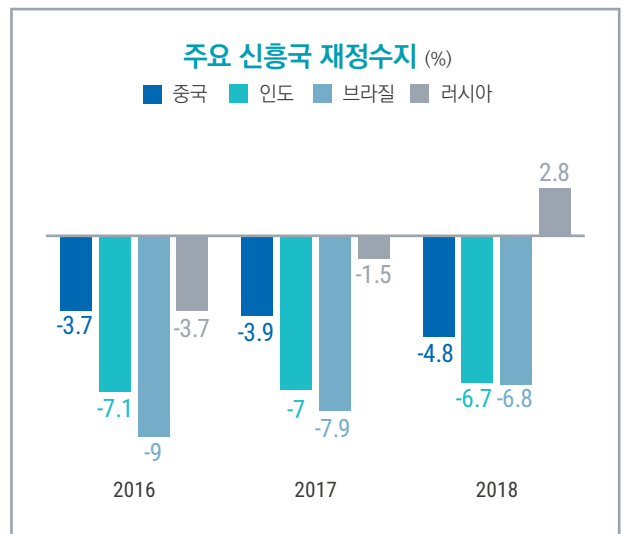


중국과 인도는 경제성장세를 유지 중이며 브라질과 러시아는 회복세를 보임

2. 주요국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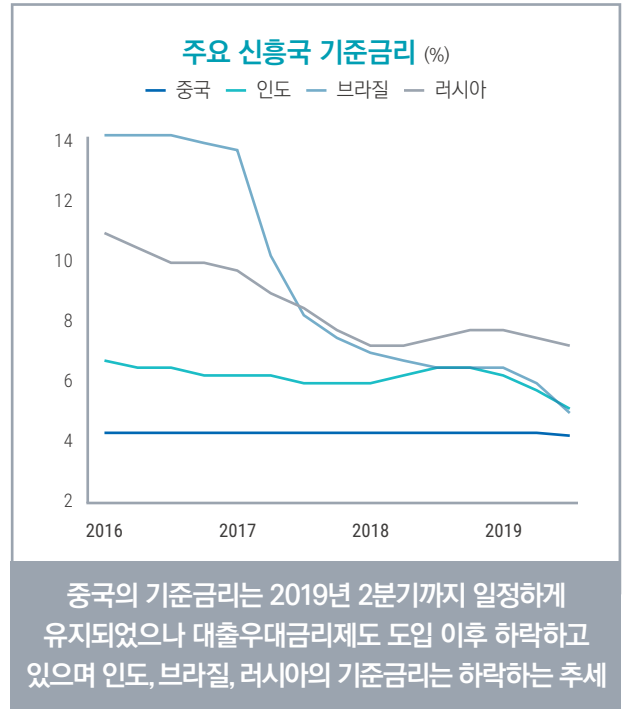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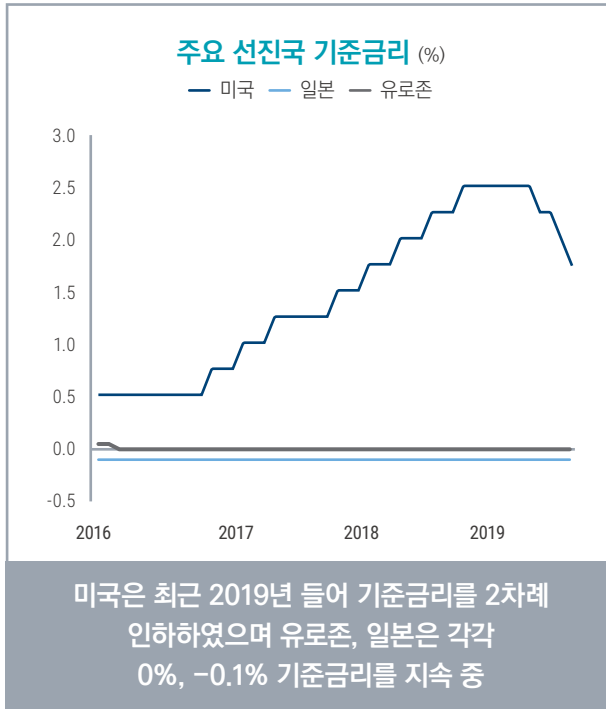


최근 독일의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은 최근 재정적자 규모가 축소, 미국은 2018년 전년대비 적자규모 확대



중국, 인도, 브라질은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2018년 흑자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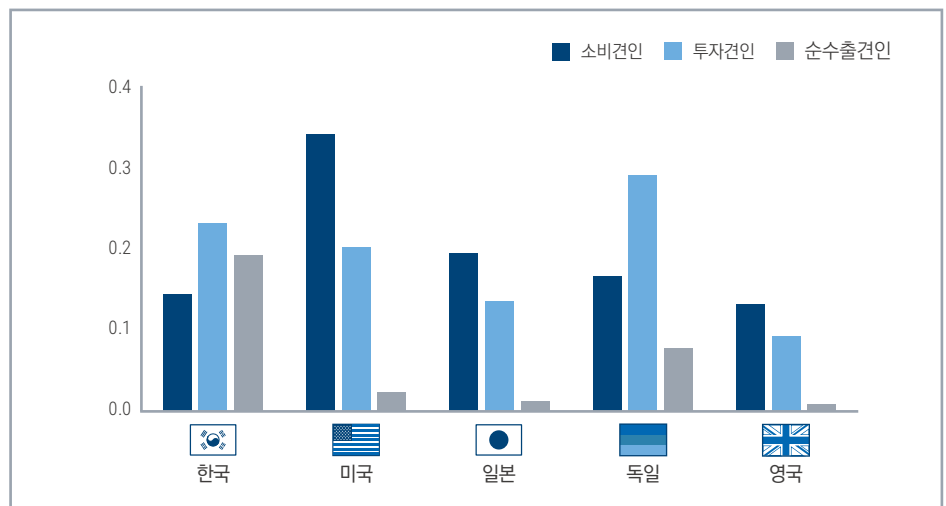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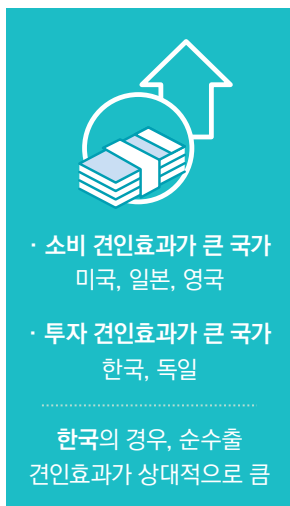
3. 주요국 기준금리



III. 주요 경제정책 국제비교분석

1. 재정지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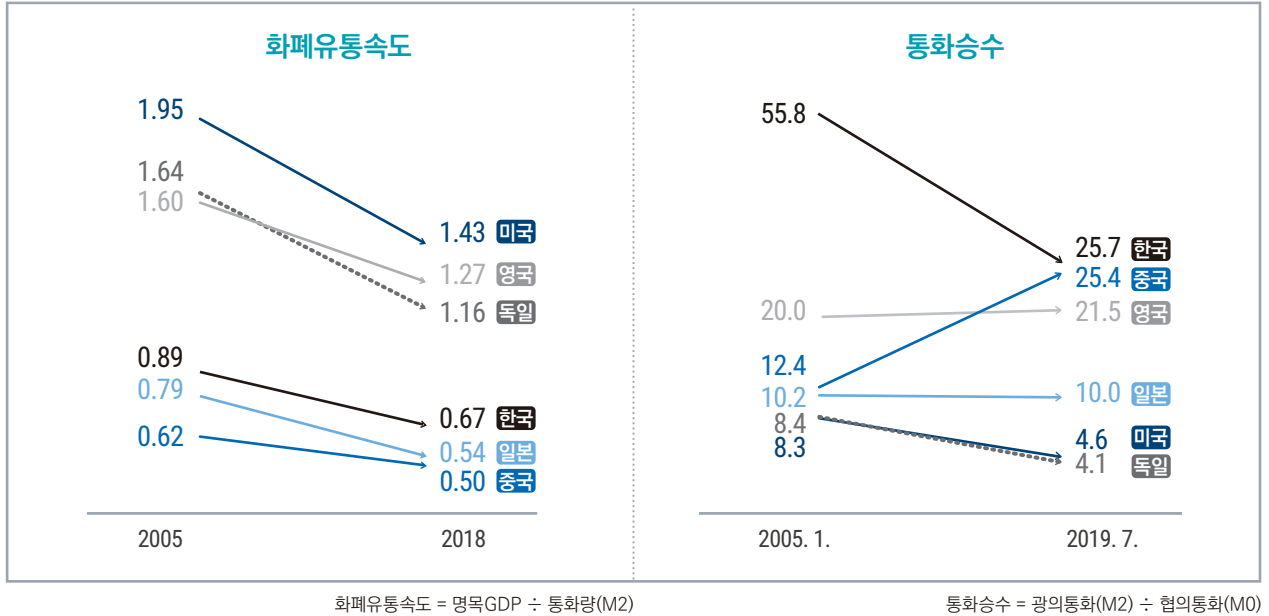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 증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항목(소비, 투자, 순수출) 중 투자 견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재정지출승수: 재정지출의 변화에 대응하여 분석대상인 경제변수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보이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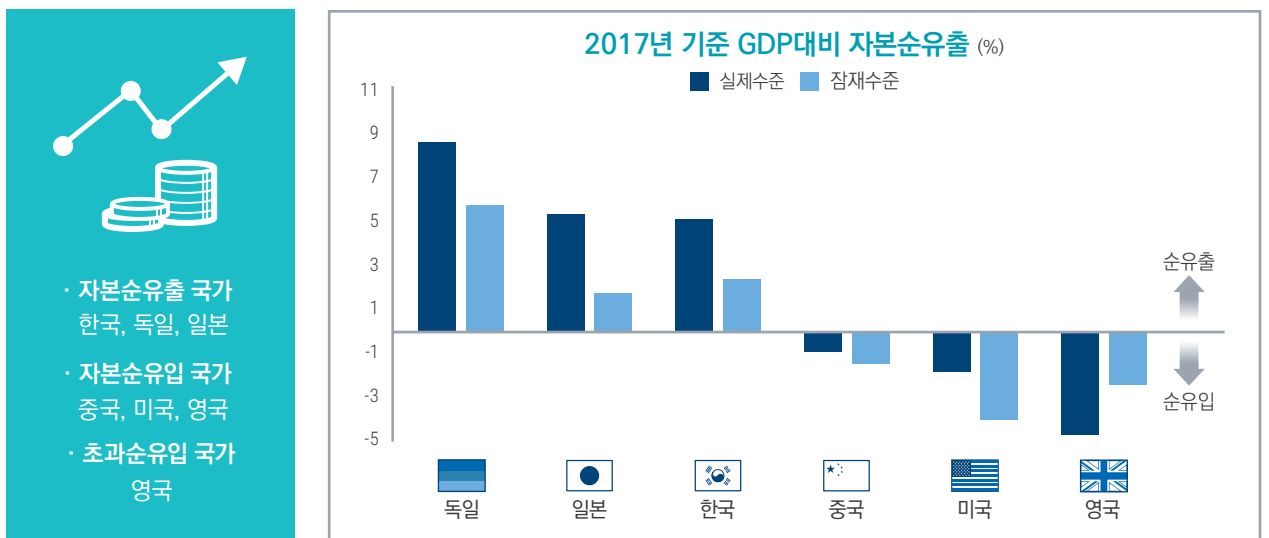
2. 통화정책 기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화폐유통속도 감소 추세가 지속
통화승수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하여 승수의 감소폭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편



3. 자본유입 원인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자국으로의 자본순유입을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상황
2017년 한국의 자본순유출은 실제수준이 잠재수준보다 높은 초과순유출 상태



자본순유출: 국제수지표 상 금융계정에서 준비자산 항목을 차감하여 산정